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시 133:1-3)

1. 시편 133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라’(히, 히네)며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을까요? 무엇을 놓치지 말고 깊이 보라는 뜻일까요?
2. ‘연합함’이 ‘선하고’(히, 토브) ‘아름답다’(히, 나임)’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어떤 조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3. 2-3절에 등장하는 ‘머리에서 옷깃까지 흐르는 기름’과 ‘혈문에서 시온까지 내리는 이슬’이라는 두 비유는 어떤 공통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이 비유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4.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3절하).
여기서 ‘영생’(히, 하에 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끊이지 않는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곳, 즉 “거기서”는 어떤 곳을 말하는 걸까요?

<나눔을 위한 질문>

1.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나 모임 안에서, 더 좋은 관계와 연합을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해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은 무엇일까요?
2. 요즘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요?